

450억에 산 땅 절반 내주고 수천억 잇속 챙기기 공정한가

부영주택, 왜 특혜 비판 나

용도변경펜 지가 상승만 2000억원
아파트 분양엔 수익 수천억원 추정
과밀학급·집값하락 등 피해 주민들
나주시 “심의서 공공성 확보” 되풀이

을 거둘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다. 미분양 가능성이 부담이지만, 일단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 상황은 건설사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복수의 건설사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참여하게 풀이먹었다는 말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골프용지(녹지)로 그 큰 땅을 헐값(450억원)에 사들여서 절반 조금 넘게 내놓고 나머지를 값비싼 고층 아파트 용지로 바꾼다는 기발한 방식에 다들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도시에 부영주택이 소유한 아파트 용지 2개 필지 35만2924㎡(약 10만평)가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6만6000㎡, 3종 일반주거지역이 6만4000㎡다.

◇부영 5300여 세대 아파트 계획 고수, 나주시 “공공성 확보 최선”=인허가권을 가진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끌려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안은 유지부동이다. 부영주택은 부영CC 잔여지 35만2924㎡에서 아파트 건축 용지 30만6926㎡(86.96%)를 제외한 4만5367㎡(12.85%)를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지로 내놓겠다는 애초 사업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이 ‘학급 과밀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취지로 중학교, 고교 용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와 학교(유치원 포함), 완충녹지 등 기부채납지 모두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하게 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기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해당 아파트 부지가 들어설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녹지, 편의시설 등이 명실상부한 공공기능이라는 것이다.

오우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잔여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영 측이 내놓겠다고 한 기부채납지도 부영 측 필요에 의한 아파트 건설로 필요하게 된 사업지 내 도로, 초등학교 부지 등이 전부”며 “450억원 주고 산 땅의 절반을 내주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차지하는 게 과연 공평, 정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기업 토지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부영주택 측은 입장 표명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상생안 마련하겠다”

국방·국토·기재·행안부 등 참석
국무실장 “이전 해법 조정자 역할”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첫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와 전남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 중심의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현실성 없는 이전 대책, 지역간 갈등 등으로 예비이전후보자 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 실장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보태고, 국무조정실도 조정자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두 지역간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도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이 군 공항 이전 지역 선정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전경. /최현배 기자 choi@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3% 동률 이낙연, 7% 한자릿수...문 대통령 32% 최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미끄러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한 자릿수로 밀렸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2%를 기록해 취임 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주 37%, 지난주 34%였다.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30대 36%·57% ▲40대 43%·47% ▲50대 36%·61%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진보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11%포인트가 낮아졌고 부정 평가(30%→39%)는 9%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5%, 인천·경기 31%, 부산·울산·경남 26%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등을 꼽았다. 한편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똑같이 23%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이낙연 위원장(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무소속 홍준표 의원(2%) 순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1%포인트씩 각각 하락했고 이낙연 위원장은 4%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여당 후보 당선’이 35%, ‘야당 후보 당선’이 5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현 정권 유지론(51%)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